

조대수필

자연의 향연



김장호 | 원로 수필가

잠으로 오랜만에 고달픈 도시를 벗어나 강가에서 자연의 숨결에 가슴이 뿌듯함은 자연이 베푸는 향연이다.

아름다운 풍광속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 힘이 솟았고 구수한 흙내음이 온 몸안에 전류처럼 흘렀다.

광활한 대지를 밟으며 강가에 이르니 두고 온 쌀 고장 끝없이 펼쳐진 황해도 연백평야가 그리워 목이 매었으나 메아리조차 없어 허허로울 뿐 하늘을 비껴 가는 조각 구름이 텅 빈 가슴을 어루만져 주는데 흘러간 세월이 덧없게 느껴졌다.

문득 옛 글귀가 떠올랐다. ‘길손은 구름을 마음으로 삼고(野客雲爲心) 고승은 달을 성품으로 삼는다(高僧月爲性)’이라 했고 또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마치 한 조각의 구름이 일어나는 거와 같고(生也一片浮雲起)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마치 한 조각의 구름이 스러지는 거와 같다(死也一片浮雲滅)고 했다.

상쾌한 맑은 공기 출렁이는 물결 잔잔한 호수에 핀 아름다운 자태의 연꽃 수령 400년을 자랑하는 느티나무 등이 어울린 ‘두 물 머리’란 마을에서 자연 정취에 매료돼 있는데 촌로가 큰 기침하며 ‘두 물 머리’의 유래를 설명했다.

‘두물머리’의 두물은 남한강과 북한강을 이름이요 두 물줄기가 합류한다는 뜻의 머리라고 한다. 이같이 한적한 강가 마을에 철교와 도로가 개설돼 교통은 편해졌으나 ‘오염’이라는 반갑잖은 손님으로 인해 인심마저 고갈되었다 한다.

그러나 밭의 온갖 채소와 적은 논이 벼 등 풍요를 꿈꾸며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강둑길 사이의 적은 호수안에 핀 수련은 수줍음을 간직하고 초록빛 옷의 넓은 잎사이의 연꽃은 겸양의 지혜를 일깨우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하늘거리고 있어 나그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여름 높지않은 산봉오리에 뭉게뭉게 피어 오르는 흰구름이 인생은 한 조각 구름과 같으니 사랑과 봉사로 남과 더불어 살라고 일깨워 주는 듯해 숙연해졌다.

연꽃 감상에 푹 빠져 있는데 꽃처럼 아름답게 살았으면 하는 욕망이 일었다.

꽃은 자연의 여왕이요 천지의 축복이며 아름다움의 대표라 했다.

옛 사람도 아름다움(美)의 대표로 꽃을 들어 화조월석(花朝月夕)이라며 고달픈 삶에서 꽃을 바라보며 값있게 살 때 만물의 영장이라 하지 않겠는

가.

길가의 황국(黃菊)은 노란 옷 입고 은근한 미소로 우리를 반기고 난장이 채송화도 '나도 사랑해주세요'라며 손짓하는데 어디선가 송아지 울음소리가 긴 여운을 남기고 사라졌다.

부잣집 만며느리처럼 후덕한 아줌마가 따르는 전통차를 마시며 화문석 아닌 명석위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로 소통이 막히고 산업화와 기계화로 인해 감성이 메마르고 있음을 한탄하는데 한 발 더 나가는 다변가인 중년은 정치는 정쟁에 여념이 없고 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교육은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전통문화는 쇠퇴하는 등 사회가 극도로 혼란해 미로를 방황하고 있다며 장탄식을 하자 옆 친구가 차 한 잔 마시고 "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후회한다"며 "상상력과 창의력의 문화는 오간데 없고 감정을 흐리게 하는 이야기와 저속한 파장과 청소년을 괴롭히는 한심한 세태"라며 땅이 꺼지는 듯한 한숨을 토했다.

다른 친구는 어느덧 이순에 가까운데 마음은 청년이라며 청춘을 예찬하면서 여름과 같은 청년시절로 회귀하고 싶단다.

세계를 정복할듯한 기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강연자로 으시댔다.

'나도 청년시절은 대지를 품고 실력을 쌓으며 장밋빛 장래를 꿈꾸며 왕성한 의욕으로 지식 기술에 바탕한 인격과 너그러운 덕성을 꾸준히 축적해 왔으나 한국의 고질적인 사회병리에 휘말려 요모양 요꼴이 되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침묵했던 털보가 "아직도 건강한데 젊은날의 기백과 열정으로 실의를 박차고 일어나 지나온 경륜을 무기 삼아 냉정한 현실을 헤쳐나가야 하지 않겠나"며 힘을 실어 주었다.

"정열은 청년의 자본이요, 용기는 청년의 미덕이요, 탐구는 청년의 속성이라 했으니 낙심치 말고 승리하자"고 찾잔을 치켜들자 모두 '건배'를 외

쳤다.

'시간은 모든 것을 삼키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음미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 시간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만드는 사람이 되자"고 외치자 모두 박수로 화답하는데 하늘엔 흰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모두 어깨동무하고 우의를 다지는데 한 친구가 '소양강 처녀'를 읊조려 명석 위엔 술이 아닌 전통차의 은은한 향기가 일행의 가슴속으로 스며들었다.

아- 청년으로 돌아가고 싶다. 흘러간 내 청춘이여, 어디서 무얼하고, 불도저 같던 강한 추진력, 험한 태산 준령도 단숨에 넘던 그 기백, 사나운 파도와 싸우며 넓은 바다를 정복하려던 늑름한 기상은 찾을 길 없으니 세월이 야속하지 않으나며 지난날의 추억을 더듬었다.

지성인임을 자처해 온 친구가 헛기침하며 주위를 돌아보면서 근엄한 어조로 명언을 술회하자 잠시 숙연해졌다.

'하늘엔 별이 있고 땅위에는 꽃이 있고 인간의 가슴에는 사랑이 있다'는 괴테의 시를 벗삼아 재기하자고 힘주어 말하자 일행의 얼굴마다 단단한 결의와 각오가 넘쳐 흘렀다.

이를 지켜보는 촌로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은 듯한 지혜의 연꽃도 중년들의 결의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듯했다.

멀리서 들려 오는 기적소리가 일행의 가슴 속에 메아리쳤다.